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투자기관 두 배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강화

- 투자기관을 기존 3개에서 6개로 두 배 확대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관심 지역 투자비율 대폭 확대
- 관광 및 해양 인프라에 투자비율 설정을 통해 투자 강화

기획예산처는 인구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투자 재원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도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대폭 개편하여 운영한다.

먼저, 투자기관 다변화로 지역활성화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존 모펀드 투자기관(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관광진흥개발기금*), 기타 공공기관 등 3개 신규 투자기관을 추가하여 총 6개 기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확대된다. 신규 투자기관의 총 투자 규모는 500억원 수준이며, 투자기관 다변화를 통해 특정 기관의 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변동성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활성화 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자금의 책임성 확보 차원에서 재정 및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함께 모펀드 내 후순위로 투자할 계획

또한, 기획예산처는 지방소멸 대응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감소·관심지역 소재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비율을 기존 1/3에서 1/2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여건상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운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규 투자기관이 희망하는 관광 및 해양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비율도 별도로 설정하여 지역의 자연·문화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한편, 2026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2025년 모펀드(투자기간 2년)의 미소진액 2,772억원을 감안할 경우, 2026년 기준 실제 투자 여력은 총 4,772억원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신규투자 기관 협의 등을 거쳐 4월 중에 2026년 모펀드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지역별 여건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과 투자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 대상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실시했던 지방정부 로드쇼, 투자기관 실무협의 등을 보다 강화하여 지방정부 대상으로 심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용사-투자기관-지방정부 간 만남의 장도 꾸준히 마련하는 등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소통협력과 (지역활성화투자팀)	책임자	팀 장	공 석
		담당자	사무관	김상일 (044-214-2441)
			전문관	박신규 (044-214-2442)



참고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개요

- (의의)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는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최초의 정책 펀드로서 '24년 신규 도입
 - 매년 정부 등이 조성한 모펀드*를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최소 10배 레버리지)
 - * '24년 및 '25년 각 3천억 규모로 조성(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은 각 1천억원)
 - 기업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정책펀드와 달리, 민간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대규모 융복합 사업을 PF금융방식으로 추진

그간 지역투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단발적·소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조단위 가능)
높은 재정의존도	풍부한 민간자본 활용
중앙정부 주도 Top-down 방식	지방정부·민간 주도 Bottom-up 방식
제한된 사업성 검증(정치적 의사결정 등)	민간의 철저한 사업성 검증
제한된 사업 유형(Positive 방식)	제한없는 사업 유형(Negative 방식)
리스크, 규제 등 민간투자 걸림돌	정부의 마중물 투자 및 각종 규제완화

- (구조) 모·자펀드 구조를 활용하여 레버리지 극대화

모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등이 매년 2,000~3,000억원 규모 조성(마중물 역할) ▶ 모펀드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프로젝트 선정(자펀드의 최대 50% 투자)
자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자펀드 결성 ▶ 자펀드는 프로젝트 SPC에 자본금, 대출금 투자(총사업비의 20% 內)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사업자, 지방정부, 자펀드로 구성된 SPC가 프로젝트 추진 ▶ 대주단(민간 은행권 등) 대출을 활용하여 자금조달(HUG 특례 보증 제공)

- (지원대상) 펀드 조성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정부가 자유롭게 선정한 프로젝트*(negative 방식)

* 수도권 소재 사업, 사행성, 위험물 저장·취급, 단순 주택 분양 사업 등 제외

- (인센티브) 모펀드를 통한 마중물 투자·위험분담,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지방정부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각종 규제 완화, 선순위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프로젝트 교육·컨설팅 등